



우리는 일하고 싶다

지연근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선전실장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노동자에겐 너무나 가혹하고 힘겨운 나날이다. 나라를 이 끓로 만든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는 한결 같은 여론이다. 치솟는 물가, 줄줄이 이어지는 실업자의 행렬을 바라보며 노동자의 위치가 다시 한번 초라해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국가 발전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는 정치권은 국민의 흐르는 눈

들을 닦아주기는커녕 계 밥그릇 쟁기기에 급급해 진흙탕싸움만 일삼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런 관국에 또다시 6월 금융대란설이 나돌고 당파싸움으로 얼룩진 국회는 의원들의 출시기 경쟁으로 혼탁과 분열의 글짜기로 한없이 빠져들고 있으니 국가 앞날은 암울하기만 하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200만을 향해 질주하는 실업자 숫자는 정리하고 대풍권 안에 들어 있는 노

동자의 목을 죄이며 사기를 꺾고 있다.

몇 일전에는 노사 신뢰 차원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해도 된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의 사기를 꺾어 버렸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배부른 자들이 말이먹은 이 나라를 구원할 자는 노동자뿐인데 노동자의 사기 를 꺾고 무엇을 얻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은 나날뿐이다.

일하고 싶은 순박한 심정으로

현대자동차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 수는 4만 5천에 달하며, 노동조합 조합원은 3만 4천명에 이른다. 현장 노동자들은 '차가 팔리지 않는다', '순환휴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다. 과연 "내 일자리는 보장되는 것일까? 회사에 찍혀 정리해고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이 3월 25일부터 일부 부서에 휴가가 시작되면서 일자리 불안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일하고 싶은 순박한 심정, 회사 발전과 가정적인 안정을 위해 일자리 확보가 급선무라는 강한 바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전체 조합원 다수가 월급이 줄고 휴가를 가더라도 정리해고 만큼은 도입되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이 어려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기를 기대하며 어렵지만 하루하루

를 살아가고 있다.

회사는 인원 정리를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이러한 노동자의 노력과 회망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회사는 노동자의 위기를 자본을 위한 최대 기회로 여기고 있어 노사 관계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이다. 자동차를 포함한 현대 자본(그룹 전체)은 몇 천, 몇만 명 감원설을 일부러 유포하고 임금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하나되어야 한다"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현장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노동조합 죽이기 최대의 기회"로 여기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한 경비 절감을 이유로 기존에 유지하던 각종 후생 복지 정책을 전면 중단하였다. 노동자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노사간에 성실과 신의로 체결한 단체협약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는가 하면 임금 체불까지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회사가 저지른 불법 사례는 30건이 넘고, 현재 박병재 사장이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관련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심한 현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서럽도록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 주야간 근무에 지친 몸을 이끌고도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거대한 목적의식으로 노력했던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은 노

동자의 삶과 노동을 이유 추구의 한 도구로 여길 뿐 노동자들 고용안정과는 너무나 먼 정책을 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종체적 위기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다. 이 나라 경제를 이끌고 만든 정치 권력과 자본의 결탁을 규탄하며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해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 지키기(고용안정)이라는 크나큰 목표 아래 지난해 회사와 합의한 “고용안정 협정서” 정신에 입각해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상급단체(금속산업연맹)에 임금협상 등 교섭권을 위임하면서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낸다는 방침으로 상급단체 강화에 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은 분명하다.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회사 정책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회사와 고용안정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회사와의 실무 협의에서 지금 실시되는 단체 휴가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이 아니다”라는 서면 약속을 받고 순환 휴가를 실시 중에 있다. 만약 순환 휴가가 장기화한다면 특정 장소에 집결하여 수시로 조직 점검을 하고 만

약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드러난다면 모든 조합원을 정상 출근시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고용안정과 관련된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동조합 요구로 가칭 ‘고용안정 공동연구위원회’를 노사 동수(7명)로 구성하여 본격적인 고용안정 활동에 돌입하였다. 아울러 대기업 노동조합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상급 단체의 각종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10년 노동조합 역사가 증명하듯 기업별 노조의 틀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각성하고 전국 노동자가 하나되는 산별노조의 길을 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노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회사가 제시한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노동조합의 자주성, 연대성, 투쟁성을 가미한 집행으로 노동자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조간부들의 고민

노동조합 창설 뒤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없었다. 없어서 못 팔아 먹던 지난 십년 세월, 이삼개월 기다려도 차를 인수받지 못했던 고객이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립다면 그립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때와는 너무나 판판이다. 차 값을 깎아 주고 몇 개월 할부를 해도 차를 사갈 고객마저도 없는 이 시대의 노조 활동은 너무나 힘겹다. 거기에다 조합원 관심도도 문제라면 문제이

**고용불안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느냐의 고민과 함께
“폐권주의에 사로잡힌 상충부”의 활동 모습을 보고 또 다른 고민에 휩싸여 있는 것이
노조 간부들의 고민이다.**

.....

다. '회사에 찍히지나 않을까, 관리자들에게 잘 보여야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자기 방어 논리가 현장을 뒤덮고 회사의 일방적 관리에 길들여져 가는 현실이 활동가들의 활동 반경을 좁히고 있음이 심각한 고민인 것이다. 어느 사업장도 마찬가지 현실에 안주하려는 조합원들을 깨우칠 프로그램이 먹혀들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이러한 현장 활동의 어려움에 덧붙여 또 다른 고민이 있다. 상충부의 주도권 다툼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폐권주의 현상"은 조합원이 등을 돌리게 하고, 상호 불신을 조장하며 극심한 분열과 대립 양상을 불러오고 있는 점이다. 고용불안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느냐의 고민과 함께 “폐권주의에 사로잡힌 상충부”的 활동 모습을 보고 또 다른 고민에 휩싸여 있는 것이 노조 간부들의 고민이다.

이렇게 해쳐 나가야 한다

단결을 수없이 외치고 있다. 다 옳은 이야기다. 그러나 말로만의 단결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노동운동의 질적인 변화 만이 조합원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본다.

IMF라는 듣도 보도 못한 괴물이 나라를 통 채로 집어삼키려는 이 시대, 자본의 탄압이 거세게 몰아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노동조합을 중심에 세워야 한다. 노동자에게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노동조합밖에 없다. 그려므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결같이 뭉쳐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가슴 속 깊이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변함없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투쟁성을 잃은 노동조합은 시체와 같다. 장사꾼인 자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단결된 투쟁력이다.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변치 않는 동지애로 뭉쳐야 한다. 자본의 논리에 대응하지 못하고 각개격파 당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변치 않는 동지애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 시기 최대 과제인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단결된 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